민족문화연구 제91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1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4편, 일반 논문 9편을 포함하여 총 13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이란 주제로 게재된 기획특집 논문 4편은 '특집의 말'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이왕무는 "임진왜란기 안동 지역 지방관과 官軍의 전쟁 수행"에서 그동안 대규모 전면전이나 대첩 중심의 국난 극복 양상에만 주목했던 주류 연구에서 벗어나서 7년 전쟁 중 안동부 지방관들의 지역 유지와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 지역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왜군의 침략에 적극 대처했던 지방관들이 전쟁에 대응한 양상을 실제로 밝혔다. 이 연구는 대규모 병력의 후방 병참기지로서 기능한 안동부의 역할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강조되었던 의병 위주 전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지역 행정체의 전쟁 대응이라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신하다.

김석배는 "『노계선생문집』 판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시가 작가로 유명한 노계 박인로의 문집인 『노계선생문집』의 판본의 변화 양상을 추적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3을 찾아서 학계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간본 이래로 복간본과 추간본 등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노계선생문집』의 판본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노계 연구를 위한 문헌학적 토대를 풍성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양혜승은 "「謾翁夢遊錄」의 형상화 방식과 특징"에서 17세기 후반 이후 장편화 경향을 보이는 몽유록 작품들과는 달리, 18세기 이후 새롭게 시도된 와유형 몽기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작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서사를 확보하는 방식의 자기 서사로서 형상화 양식이 변모하는 19세기 몽유록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만옹몽유록」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몽유자의 선연(仙緣)과 산수유람의 당위성 강조를 위해 중국의 명승지가 환상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양상과 함께 선계에서 인물을 만나는 모티브와 산수유람의 모티브가 혼효된 양상을

세심하게 설명하는 한편, 남들과 구분되는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강조하는 특징과 함께 다른 문학 장르와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현상까지 포착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19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문예적 양상으로서 「만옹몽유록」이 꿈을 통해 개인 주체의 내면과 사유를 표현하는 자기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소라의 "창극의 성격과 양식에 관한 재고찰 —'창극논쟁'을 넘어서기 위하여"는 그동안 전통적 판소리 기반의 근대적 음악극이라는 '창극'의 정체성 인식으로 인해 현대 창극의 다양성이 정형성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파격과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음악적 지향과 드라마적 연극성을 강조하는 극적 지향 및 다양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양식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통해 그동안 무대극으로만 제한되었던 창극의 범주와 성격을 확장함으로써 전통적 창극과 현대적 창극을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김성순은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불교의 활동과 마산포교당의 대응에 관한 고찰"에서 1876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유입된 다양한 일본 불교와 신종교들이 한국인들의 신앙으로 충분히 편입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포교당을 만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한국 불교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이 김경봉과 장지연 등을 중심으로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을 설립하여 문화센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심이 된 마산불교진흥회와 마산 신간회가 상당수 겹치는 인물이 많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사회사업과 독립운동이 중첩된 근대 한국 불교의 근대화 과제 추진 양상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촉구하였다.

노선희의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의 교차로, 사진결혼(1910-1924)"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발생한 사진결혼의 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로서, 한인 신부들이 사진 교환을 통해 혼인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입국한 사진결혼이 남성 엘리트들에 의해 미화되고 상상된 미국, 즉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하여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

주의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교차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영미의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의 개사 양상 연구 —초판본(1929, 1933)과 개작본(1964)을 중심으로—"는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의 초판본과 개작본의 판본을 비교함으로써 작품이 개작되는 방식과 유형 및 효과를 규명했는데, 납북 혹은 월북한 작가의 작품을 출간할 수 없었던 시대적 제약 속에서 가사와 선율이 어긋나는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음악계와 동요계의 인사들이 검열을 피해 개사하는 양상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요 개사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일은 "1945-1948년 각 사회세력의 협동조합론"에서 해방 후 헤게모니 쟁탈전의 정치적 대중운동의 양상을 보인 협동조합운동이 금융조합과 산업조합과 같은 관제 협동조합과 연관된 인사들과 노동, 농민, 청년운동과 연관된 소비조합을 지지했던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로 나뉘어서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이면서 해방정국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기하는 양상을 보이는 현상을 신국가 건설과 민족경제 수립을 위한 해방정국의 정치과잉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파적 경쟁이 극대화된 양상은 민간의 경제적 권익단체로서 자율적 조직 양상을 드러내는 협동조합 조직의 일반적 양상과 대비되는 해방정국의 시대적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이해영은 "1960년대 초반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재정립 —리근전의 『범바위』 초판본을 중심으로"를 통해 리근전의 장편소설 『범바위』를 중국 건국 초기 소수민족으로 편입된 조선족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웠던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혁명 서사로 간주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연변의 반우파투쟁, 지방민족주의 반대 운동, 대약진의 실패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과 조선족의 북한으로 역이주 현상 등의 역사적 배경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당시 연변 사회에서 조선족과 한족의 민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문학적 대응이자 위기에 빠진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역

사적 위상을 새롭게 구축하는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안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해외한국학자료 소개에서는 조선 말기 송내희가 편술한 필기야담집인 『계산담론(鷄山談論)』과 『계산담수(鷄山談藪)』 해제를 다루었다. 이 해제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에 활용하지 못한 희귀본 자료들의 이본 고찰을 통해 필사본의 계통과 기초 정보를 분명하게 제공했다. 이 자료들은 다양한 인물 관련 기사, 지리지 성격의 기사, 임진왜란 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 치료법, 몽고어와 만주어 풀이, 방물진공의 폐단과 전제(田制)의 문제 및 과거 문체의 병폐 비판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권6에 담긴 최치원 관련 조목과 보탑시와 패옥시 등의 잡체시들은 학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자료로 보인다. 이번 해제를 통해 19세기의 필기야담집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민족문화연구』 제91호에는 기획특집으로 4편의 사전학 논문 외에 문학 5편, 역사학 3편, 종교학 1편 등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번 호에는 전근대를 다룬 연구보다 근현대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등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임진왜란, 문집 판본, 창극, 종교, 사진결혼, 동요, 협동조합, 혁명서사 등 소재와 주제 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접근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던 흥미로운 주제를 발굴하거나 선행연구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게재되었다. 앞으로도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와 소재들을 다루는 참신한 연구들이 『민족문화연구』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한국학의 새로운 이해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